『한국민족문화』 83, 2022. 11., 61~83 http://doi.org/10.15299/jk.2022.11.83.61

기성세대의 논리와 동원된 청년들
- 해방기 김동인 소설의 세대론을 중심으로 -

박 수 정*

1. 서론
2. 식민 경험의 특권화와 오욕의 전가
3. 내면화한 제국의 논리와 세대 정체성의 구축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1920~30년대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김동인의 해방기 소설에 주목하여 해방 후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청년상은 당대 사회의 주요 청년 담론과 다소 상이하다. 해방기 사회는 청년을 '순수한' 국가 건설의 주역이라 명명했으나 실제 해방기 청년은 기성 세대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더러운 일'을 수행했다. 주목할 것은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이 청년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호명한 당대 주요 담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하에 청년을 동원하고자 했던 실제 기성 세대의 세대 인식과 닮아있다는 점이다.

김동인은 「송 첨지」, 「학병 수첩」, 「김덕수」에 걸쳐 기성 세대의 식민 경험을 특권화하는 한편 청년 세대를 민족의 오욕으로 표상하여 기성 세대를 청년 세대의 계몽자로 위치시켰다. 이와 같은 김동인의 세대론에는 대일 협력 문제를 세대 문제로 전환하여 대일 협력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장되어 있다. 나아가 해방기 김동인의 세대론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lllvee@naver.com)

요구되었던 해방기의 시대적 상황과도 결부된 것으로, 반공 체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대일 협력의 문제로 민족 정체성에 귀의할 수 없었던 김동인은 역사 속에 닻을 내리기 위해 세대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김동인, 세대론, 해방기, 「송 첨지」, 「학병 수첩」, 「김덕수」

1. 서론

이 글은 김동인의 해방기[1] 소설에 주목하여 해방 후 김동인의 세대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해방 직후 김동인 소설에는 세대 문제가 여러 차례 대두된다. 이는 해방기가 민주주의 담론의 부상과 함께 개인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요구되었던 시기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은 해방기 사회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와 결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일 협력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김동인은 세대를 통해 친일 청산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민족 정체성에 쉽사리 귀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대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해방기 김동인의 세대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당대 주요 소설이 표상한 청년과 김동인이 표상한 청년이 대조적이라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방기에 제출된 다양한 소설은 청년 세대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표상했다. 반면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청년 세대는 정치적 목적 아래에 기성 세대에게 동원되었던 해방기 사회의 실제 청년의 모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므로 해방기 김동인의 세대론이 놓인 자리를 보다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방기 사회의 청년 표상과 실제 청년 사이의 간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방기의 주요 청년 담론과 실제 해방기 청년의 모습을 살피고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과 의미를 살피고자

1) 이 글은 민주주의 담론이 부상한 해방 직후부터 반공 체제가 공식화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시기가 포함된 해방 직후부터 단정 이전까지의 시기를 해방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관련한 해방기 김동인 연구를 간략하게 살피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김동인은 「문필가협회」 결성 시 문인들의 자리다툼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을 만큼[2] 문인의 정치 활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주지하듯 대일 협력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동인은 해방 이후 다소 소극적인 활동을 보였으며 연구사적으로도 당시 김동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비교적 최근에야 해방기 김동인 연구가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우익 중심으로 문단이 재편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해방기 김동인 텍스트를 살핀 경향이다. 김준현은 해방기 김동인의 문단회고를 식민지 시기의 문단회고와 비교하여 그 변화 양상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으며 김동인의 문단회고 변화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 우파 중심의 문단 형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3] 강정구는 해방기 김동인 문학의 민족 표상이 좌파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우파 집단을 순수한 민족으로 표식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지적하며, 김동인 문학에 나타난 우파의 순수한 민족 정체성은 우파 내부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었음을 지적했다.[4]

다른 한편에서는 김동인의 해방기 문헌을 친일 문헌과 비교하여 논리적 유사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박수빈은 김동인의 친일문학과 해방기 회고를 함께 검토하여 김동인의 해방기 회고가 그의 문학적·사회적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말기의 친일문학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5] 하상일은 일제 말 친일 문학과 해방 후 친일 청산의 과제가 당면 현실의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

2) 김동인, 「文壇三十年史」,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976, 77쪽.
3) 김준현, 「단정 수립 후 문학 장의 변화와 이헌구의 문단회고 - 자기서사의 재구성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83권, 민족어문학회, 2018.
4) 강정구, 「해방기의 김동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5) 박수빈, 「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라는 측면에서 동질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해방 이후 김동인 소설은 자기합리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6] 김영삼은 김동인의《매일신보》논설과 그의 해방기 소설을 함께 검토하여 해방기 김동인의 작품에 내재한 일제의 생명정치 논리를 규명했다.[7]

이와 같이 해방기 김동인 연구는 우파 중심으로 문단이 재편되어 가던 해방기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여 김동인을 논의한 경향과 친일 문학과의 연장선상에서 김동인을 논의한 경향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세대 문제가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해방기 김동인의 세대론을 규명하기에 앞서 세대를 둘러싼 해방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일제가 물러간 해방 거리는 귀환과 이산, 각종 집회 등으로 무질서가 횡행했다. 혼란한 해방 거리의 치안유지운동은 조선학도대, 조선학병동맹, 조선국군준비대 등 학생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치안 운동이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된 까닭은 학원을 주축으로 한 학생의 조직화가 용이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조직화는 자체의 질서를 가진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동원체제기 학생들은 강제노동, 군사훈련, 옥살이 등을 통해 사상적 무장을 했기에 해방 후 학생들은 '학생이자 청년운동가'가 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은 구분되지 않은 채로 전개되었으며 청년·학생층은 치안을 유지하고 대중 운동을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했다.[8]

이렇듯 기존의 지배 질서가 와해되고 다양한 주체가 경합하는 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청년은 해방기 사회의 가장 유력한 정치적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가 건설의 주체로 부상한 청년들은 일제 잔재 청산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했다. 식민지 과거 청산과 국가 건설의 과업은 식민지 시기와

6) 하상일,「해방 이후 김동인의 소설과 친일 청산을 위한 자기합리화」,『철학사상문화』제30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7) 김영삼,「제국과 친일문학의 생명정치 논리 - 김동인의《매일신보》에 실린 논설과 해방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비평』제9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1.
8) 김행선,『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선인, 2004, 29-37쪽.

그 시기를 담당했던 세대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해방 직후 한국 사회에는 청년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표상하는 다양한 서사가 제출되었다.

청년 세대가 등장하는 해방기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정치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보다 부재하거나 혹은 배후에서 청년 주체를 조력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1946년 5월 19일 탈고)에는 취직을 하거나 집 안에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기성 세대 '나'가 등장하며 이태준의 「아버지의 모시옷」(『첫전투』, 1946.8.14.)의 정치 지도자 찬옥의 아버지는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며 아버지의 모시옷은 결국 모녀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팔려나간다. 김남천의 『1945년 8·15』(『자유신문』, 1945.10.15.~1946.5.) 또한 아버지의 귀환이 지연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 박문경의 행보를 드러낸다.

「민족의 죄인」, 「아버지의 모시옷」, 『1945년 8·15』에서 보듯 해방 직후 청년 세대가 등장하는 작품의 기성세대는 부재하거나 정치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민족의 죄인」의 '나'는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 아이에게 "당장, 가. 가서, 같이 해. 퇴학맞아두 좋다, 금년에 상급학교 들지 못해두 상관없어."[9]라고 훈계하지만 이 대목은 계몽자로서의 기성 세대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단 직접 행동을 할 수 없는 기성 세대의 민족적 죄의식을 초점화하고 있다. 혼란한 해방 정국에서 정치적 주체로 나서거나 나설 수 있는 이는 청년/학생이었으며 기성세대는 '민족의 죄인'으로 부재하거나 극복되어야 할 존재로 표상된다. 그러나 청년 세대를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주역으로 위치시키는 당대의 문학적 표상은 실제 해방기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구별된다.

> 한국 정치의 힘에서 어떤 정당이 자신의 대의에 열렬히 충성하며 '더러운 일'dirty works을 수행할 강력한 무장 청년단체가 없다면 다른 정치조직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다. 한국에서 청년은 40세 이전까지

9) 채만식, 「民族의 罪人(下)」, 『백민』 제16호, 1949.1, 65쪽.

> 이며 청년단체는 보이스카웃과 다르며 한국의 청년단체는 연장자에 대한 극단적 숭배라는 오래된 전통이 있다.[10]

위 대목은 미군정 정보기구 CIC의 자료로 해방기 당시 정치 주체로 표상된 청년의 이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위 자료에 따르면 해방기 한국의 청년단체는 정당을 위해 "대의에 열렬히 충성하며 '더러운 일'을 수행"하는 단체였으며 "연장자에 대한 극단적 숭배"가 이루어지는 단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의 청년 담론은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청년을 창조와 파괴의 상징으로 호출하여 미래를 담지하는 주체의 상징으로 삼았다.[11] 청년은 상실한 국권을 회복할 대안이었으며 혼탁하고 쇠미한 '노인'과 대비되는 순수한 존재로서 미래(서구-미래)를 선취할 존재로 규정되었다.[12]

그러나 실제 한국 청년은 이상적 청년 담론에 조응하지 않았다. 대의에 충실히 복종하는 해방기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맡지 않았던 '더러운 일'을 수행했으며 '연장자를 극도로 숭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방 직후 인구 이동과 경제적 곤란으로 대규모의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생활난에 허덕이던 청년들은 지역별로 조직된 청년단으로 흘러들어갔다.[13] 그렇게 청년들은 당대 정치 세력이 폭력을 활용하여 상대편의 지도력과 조직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동원되었다. 특히 우익 정치세력과 우익 청년단체의 합작은 정치 테러로 이어졌고 미군정을 이를 용인하고 이용했다.[14]

이처럼 해방기 문학에 나타난 청년 표상 및 담론과 해방기 사회의 실제 청

---

10)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2014, 돌베개, 269쪽 재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political party which lacked a strong-arm youth group, fiercely loyal to the cause, to do its "dirty work" really could not be expected to worry any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the youth groups were hardly akin to the Boy Scouts, since a youth in Korea could be close to forty, such were the demand of the old custom of extreme reverence for the elder men. (정용욱 편, 『해방 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 10, 다락방, 1994, 83쪽.)

11) 소영현, 「청년과 근대 - 『少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 41쪽.

12) 위의 글, 49쪽.

13) 이기훈, 앞의 책, 265쪽.

14) 위의 책, 261쪽.

년 사이에는 다소 큰 간극이 있었다. 해방기 문학은 당대 청년을 기성세대와 반목하는 존재이자 기성 세대의 가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 주체로 표상했지만, 실제 해방 거리의 청년들은 생활난을 이유로 전략적으로 조직된 청년단에 흘러가 기성세대와 연합하거나 그들로부터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방기 문학에 나타난 청년 표상과 실제 청년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면 해방기 김동인 소설의 청년은 의아하게도 당대 문학이 표상하고자 했던 이상적 청년이 아닌, 기성 세대에게 동원되는 실제 청년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2. 식민 경험의 특권화와 오욕의 전가

해방 이후 발표된 김동인 작품에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세대 문제이다. 김동인은 「송 첨지」(『백민』, 1946.1.), 「석방」(『민성』, 1946.3.), 「학병 수첩」(『태양』, 1946.3.), 「김덕수」(『대조』, 1946.8.)에 걸쳐 세대 구분을 시도한다. 주목할 것은 해방 후 김동인의 첫 단편 「송 첨지」부터 「김덕수」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김동인 소설의 청년 표상과 세대론이 해방기에 제출된 주요 소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청년 세대에 주목한 해방기 작품의 다수가 청년 세대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면 김동인은 그와 상이한 방식으로 청년 세대를 표상한다. 또한 세대론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는 이 일련의 작품들을 연속하여 살폈을 때 이 작품들은 하나의 인식으로 수렴한다. 그렇다면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 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인가.

해방 후 김동인이 처음으로 제출한 작품은 「송 첨지」이다. 송 첨지는 동경에서 유학한 인물로 첨지라기보단 '선생'이나 '주사'가 어울리는 지식인이다. 그는 동경 유학 시 사숙 주인의 딸과 아이를 낳은 바람에 일본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조선으로 돌아온다. 조선으로 돌아와 면서기를 하던 송 첨지는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 헤어진 뒤 사글셋방에서 건조한 생활을 보내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각성하여 애국주의자가 된다. 이후 송 첨지는 농촌을 방문하여

조선학을 가르치다 당국의 탄압으로 만주에 들어간다. 만주 조선인 사회의 지도자가 된 송첨지는 "일반 대중과 무릎을 겯고 마주 앉아서 애국사상을 배양해주고 동족애의 관념을 길러"주었으나 만주의 어느 시골에서 병을 앓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 세상을 뜬다.

「송 첨지」는 한일 합병 이전에 태어난 지식인 인물이 조선과 민족을 위해 민족운동에 투신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쉰까지는 아직 수년간 남아 있"는 나이에 죽음에 이른 '송 첨지'는 3·1 운동을 통해 각성한 인물로 1920년대 민족주의 청년 담론의 청년상과 닮아있다.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은 『학지광』을 통해 새로운 청년 담론을 생산했다. 조선의 청년은 학생인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자수자양'의 세대이며 민족의 근대적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담론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1920년대의 '청년'은 조선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민족을 통합하는 주체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언론은 "수양을 통해 근대적 합리성을 내면화하고 문화운동을 이끌어가는 계몽적 주체"의 이상을 청년 세대에게 제시했다.[15]

1920년대 후반이 되자 민족주의 진영은 청년 세대에게 지도자라는 사명을 가지되 계몽자라는 우월적 인식을 버릴 것을 요구했으며 소규모 향촌공동체에 들어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며 농촌 사회의 일부가 되길 요청했다.[16] 「송 첨지」의 서두에서 송 첨지가 "첨지라기보다 '선생'이라든가 '주사'라 하여야 좋을 우리의 송 첨지"라고 소개되는 대목은 송 첨지가 지식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려놓고 귀농 운동에 전념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가 1920년대 후반 민족주의자들이 제시한 이상적 청년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40대 중반에 예순 노인이 된 송 첨지가 해방의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울다 죽음에 이르는 서사의 종결은 민족을 위해 투신한 1920년대 청년 세대의 경험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송 첨지」에는 작가 김동인의 세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드러난다.

15) 위의 책, 313쪽.
16) 위의 책, 147쪽.

이날따라 송 주사의 마음에는 동포라 하는 새 관념이 생겨 남 같지 않아서 애교의 미소를 띠면서 소년에게 가까이 갔다.

"이 좋은 날 너는 만세두 안 부르구 집에 백여 있었니?"

"왜 안 불러요?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인데요."

"그래? 독립돼서 참 반갑다. 너 올에 몇 살이더라?"

"여덟 살예요."

소년의 이 대답에 송 주사는 오연히 허리를 젖혔다.

"여덟 살이면 너는 왜종이로구나. 그러려니 애처로워라. 이 기쁜 날을 너는 기뻐할 자격이 없어. 열 살 이하의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왜종이야. 우리 같이 광무 연대와 융희 연대에 태어난 사람이고서야 오늘이 기쁜 날이지 너는 빠지거라."[17]

송 첨지는 한일 합병 이후 태어난 소년을 '왜종'이라 명명하고 3·1 운동은 광무 연대와 융희 연대에 태어난 자신의 세대만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고 아이에게 말한다. "한국이 없어진 뒤에 났으니 왜종"이라는 송 첨지의 주장은 「송 첨지」의 목적이 식민지 시기에 민족을 위해 헌신한 조선인 전체를 부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1920년대 전후반을 '청년'으로 보냈던, 그리하여 해방 후 기성세대가 된 세대의 식민 경험을 특권화하는 데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일 합병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본인'으로 그 이전 세대를 '진정한 조선인'으로 규정하는 김동인의 세대론은 이후 발표된 「학병 수첩」과 「김덕수」에서도 반복된다.

「학병 수첩」은 1946년 『태양』에 발표된 작품으로 총동원체제기 전쟁에 동원되었던 학병세대 '나'의 내면 고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조선인 학병으로 참전한 '나'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영국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총동원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는 일제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고안한 논리가 '동근동조'라는 것을 깨닫고 숭고화된 병역권 또한 그 논리 아래에 구축된 것임을 깨닫는다. '나'는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자 일제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자신을 사람들이 '진정한 조선인'이 아니라 비난할 것을 염려

17) 김동인, 「송 첨지」, 『김동인 단편 전집2』, 가람기획, 2006, 348쪽. 김동인 소설 인용은 모두 이 책에서 했다. 이하 소설 인용은 소설 제목과 인용한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한다. 그러나 해방 후 '나'는 해방이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학병 수첩」은 '나'가 해방된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젊은 심신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대목으로 종결된다.

「학병 수첩」에서 주목할 것은 학병 세대 '나'가 한일 합병 이후 태어난 자신을 "엄정한 의미로는 나면서부터 일본인"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면서부터 일본인이요 지금껏 자라는 내내를 일본 국가 비상시국을 하고 넘은 관계로 어려서부터 교육의 황도 정신을 머리에 처박아 오늘까지 이른 우리라……열렬한 민족주의자인 아버지를 가진 나 같은 사람은 예외거니와, 30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일본인 성격과 일본인적 사상과 일본 황도에 젖은 사람이 태반이다. (중략) 한때 내 어리석은 소견에 근심하였던 바 대정 연대와 소화 연대에 출생한 '일본인인 조선 청소년'들도 노인네들과 손을 맞잡고 미친 듯이 기뻐 뛰논다 한다.[18]

한일 합병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합병 이후 태어난 청년 세대를 '일본인'이라 명명하는 「학병 수첩」의 세대 인식은 세대 내부의 개인의 차이를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친일의 기표를 기성세대로부터 탈각시키고 이를 청년 세대에게 뒤집어씌운 뒤 폐기처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세대 인식은 '나'가 해방의 소식을 듣는 시점에서 표면화되는데, 이는 김동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세대론이 해방 이후 '나라 만들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해방의 소식 앞에서 부상하는 「학병 수첩」의 세대론은 해방 후 새로운 주체에 대한 작가 김동인의 인식을 드러낸다. 「학병 수첩」의 청년 세대 '나'가 자신을 '나면서부터 일본인'으로 기성세대를 '진정한 조선인'으로 설정하는 대목에서 청년 세대는 국가의 주체로서는 부적격한 존재인 동시에 친일의 혐의를 담지한 문제적 세대로 전락한다. 「학병 수첩」은 청년 세대 '나'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드러내지만, 실상 '나'는 작가 김동인이 위치한 기성세대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는

18) 「학병 수첩」, 379-380쪽.

"나면서부터 일본인"인 학병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조선인"인 아버지 세대, 즉 작가 김동인이 위치한 기성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 '나'의 논리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송 첨지」, 「학병 수첩」에 걸쳐 김동인은 한일 합병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본인'으로 지칭하는 세대 논리를 반복한다. 작가 김동인이 위치한 기성 세대의 식민 경험은 「송 첨지」를 통해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세대로 특권화되며 「학병 수첩」의 청년 세대는 민족의 치욕으로 형상화된다.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식민 경험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는 김동인의 세대론은 「김덕수」에 이르러 대일 협력자 청년 세대를 계몽하는 기성 세대의 서사로 발전한다.

「김덕수」는 식민지 시기 경찰 고등계의 형사였던 청년 김덕수와 식민지 시기 판사였으나 해방 후 변호사가 된 기성 세대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정 중엽에 태어난 김덕수는 경찰의 급사로 들어가 형사에 진급한 인물로 그는 황국신민인 자신을 자랑스레 여기며 국가의 역적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고문 명수'라는 칭호가 붙을 만큼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일삼았던 김덕수는 해방 이후 종적을 감췄으나 '나'가 새로 이사 간 동네에서 '나'와 마주치게 된다. 민족의 증오에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김덕수는 '나'를 통해 민족 개념을 재정립하고 민족의 채찍을 감수하고자 형무소에 복무하기를 선택한다.

> 덕수는 일본의 대정 중엽에 세상에 난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는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영세한 시민이었다.
>
> 요행 소학교는 무사히 졸업하고 그러고는 경찰서의 급사로 들어갔다가 본시 영특한 자질이라 어름어름 '끄나풀'로 다시 형사로까지 승차를 한 것이었다.
>
> (중략)
>
> 고문 명수, 자백 자아내는 명인이라는 칭호가 어느덧 그네에게 씌워지고, 상관의 신임도 차차 두터워질 때에 그는 이것을 추호도 자책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자랑으로 알고 명예로 알고 자기의 천직으로 알았다.[19]

위 대목은 김덕수의 이력을 드러내는데 주목할 점은 김덕수의 이력이 친일 경찰로 유명한 '노덕술'의 이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김덕수는 식민지 시기 '고문 명수'라는 칭호가 붙을 만큼 고문으로 유명한 친일 경찰이었다. 그는 해방 후 다시 '경관'이 되어 "금빛 찬란한 경부의 제복"을 입었는데, 고문 명수로 유명했던 김덕수가 해방 이후 다시 경찰 간부로 등용된 점, 경찰서의 급사로 들어갔다 "어름어름 '끄나풀'로 다시 형사로 승차를 한" 점은 노덕술의 전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20]

흥미로운 것은 고문 경찰 노덕술과 김덕수를 동일 인물로 간주할 만큼 두 인물이 상당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덕술과 김덕수의 나이가 한 세대 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노덕술은 1899년 한일합병 이전에 태어난 인물인 반면 「김덕수」에서 김덕수는 대정 중엽에 태어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서력으로 치환하면 김덕수는 1919년 전후에 태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동일 인물로 추측되는 두 인물의 출생 시기가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이다. 작가 김동인이 기성세대 노덕술을 연상하게 하는 김덕수를 '대정 중엽'에 태어난 청년으로 설정한 부분은 대일 협력의 이미지를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고자 했던 「학병 수첩」의 의도가 「김덕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고문 경찰이던 김덕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계몽은 기성세대 '나'에 의해 이루어진다. 1899년생 노덕술을 연상시키는 김덕수는 한일 합병 이

19) 「김덕수」, 385쪽.

20) 노덕술은 울산 장생포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로 장생포 지서에서 급사로 일하다 순사교습소에 들어갔으며 교습소를 수료한 뒤 순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말단 순사에서 시작하여 경시(警視) 직급까지 올라갔다. 해방 이전 경시 직급까지 오른 조선인은 21명에 불과했다. 소학교 2년을 중퇴하고 순사교습소를 수료한 것이 이력의 전부였던 노덕술이 경시까지 오르게 된 것은 그가 고문에 능통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고문한 대가로 1937년에 경부(警部) 자리에 오른다. 이와 같은 노덕술의 전기와 김덕수의 전기를 비교할 때 두 인물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덕수」의 '나'가 김덕수를 '김 경부'라고 호명하는 대목은 식민지 시기 경부의 자리에 있었던 노덕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와 같이 노덕술의 전기적 상황을 살펴봤을 때 김덕수는 실제 인물 노덕술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노덕술과 관련한 내용은 정길화, 「친일파, 그들만의 면죄부」,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해냄출판사, 2006, 141-144쪽 참조.

후 태어난 청년으로 설정되고 이 청년을 용서하고 계몽하며 이해하는 주체는 기성세대인 '나'가 되는 것이다. 민족에 헌신한 「송 첨지」의 기성 세대와 대일 협력의 혐의를 안은 「학병 수첩」의 청년은 「김덕수」에 이르러 대조적으로 접합된다. 그렇다면 해방 후 김동인이 이와 같은 세대론을 반복하여 전개한 까닭은 무엇일까.

3. 내면화한 제국의 논리와 세대 정체성의 구축

「송 첨지」, 「학병 수첩」, 「김덕수」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세대론의 의미를 논의하기에 앞서 위 작품에 나타난 세대 구분의 전략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위 작품에서 김동인은 '대정', '소화' 등의 연호를 사용하여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를 구분한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김동인이 세대 구분을 위해 사용한 일본 연호가 식민지 시기 일제가 강요한 검열 제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 그러면 내용 검열에 대해서는 어떤 취체가 있었는가? 물론 일본과 조선의 관계라든가, 조선 민족의 문제라든가 하는 중대하거나 「델리케이트」한 문제에 관해서는 作家(혹은 필자)도 애당초 쓸 생각도 안하거니와, 문구 문구의 세세한 취체 방법을 보더라도 대체 「일본」이라는 말을 쓸 권한이 없고 「內地」라 쓰지 않으면 안되며 西曆의 年數를 못쓰며 「明治, 大正, 昭化, 혹은 皇紀」를 써야 한다.[21]

김동인이 1946년 『해동공론』에 발표한 「지난 時節의 出版物 檢閱」의 한 대목이다. 위 대목에서 김동인은 식민지 시기 검열 제도로 인해 서력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명치, 대정, 소화와 같은 연호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연호의 사용이 식민 체제의 산물이라면 해방 후 발표된 작품 「송첨지」[22], 「석방」[23], 「학병 수첩」, 「김덕수」[24]에 이르기까지 일본 연호에

21) 김동인, 「지난 時節의 出版物 檢閱」, 『해동공론』, 1946.12.
22) "그는 광무 연대에 난 사람이노라는 우월감이 무럭무럭 일어, 소년에게 한마디의 경계를

기반하여 세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들은 식민 체제를 내면화한 김동인의 의식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증거한다. 식민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김동인의 인식은 해방 후 그가 청년 세대를 표상하는 방식과 그들을 민족 공동체 내부에 위치시키는 방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병 수첩」의 내용이 총동원체제기 김동인이 내면화한 일그러진 근대 발전론에 입각해 있다는 지적은[25] 해방기 김동인 소설의 청년들이 민족으로 회귀하는 과정과 김동인이 제시하는 이상적 청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총동원체제기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총력전'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고안했다. 일제는 조선인이 단순히 반항하지 않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했다.[26]

문제는 피식민자를 동원하는 제국의 정책에 "피지배자가 지배자와 아주 비슷해지기를 바라지만, 결코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식민자들의 진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피식민자가 식민 제국에 철저하게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구분되길 바라는 식민자의 심리에는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의 분열과 차이가 존속해야만 식민 지배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당위가 전제되어 있다.[27] 그리하여 제국의 논리를 내면화한 조

남기고 막 자기 방으로 향하려 할 때에, 소년(대정 연대에 난)의 아버지가 싱글싱글하면서 송 주사에게로 향하였다." (「송 첨지」, 348쪽)

23) "더욱이 숙희가 감격적으로 느낀 바는 '소화 연간'에 출생한 조선 애들이야말로 진정한 황민이라고 일본인들이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던 소학교의 아이들이 가장 열렬히, 가장 활발하게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두르며 돌아다니는 광경이었다." (「석방」, 366-367쪽)

24) "일본 대정이나 소화 연대에 출생한 우리 사람도 수백만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특별한 지도가 없는 이상에는 혹은 시대에 영합하기 위하여 혹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가정에서도 그 자녀를 일본 신민 만들기를 목표로 교육하거나 혹은 그저 방임해두거나 한 아이들은, 소학교에서부터 일본 (황국) 신민 되기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는지라, 근본 사상이 애초에 일본 신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김덕수」, 389쪽)

25) 김영삼, 앞의 글, 194쪽.

26) 오태영, 「전시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문학의 공백과 균열 - 김사량의 『바다의 노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2집, 상허학회, 2014, 341-342쪽.

선인들은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결국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부각하는 아이러니로 귀결된다.[28]

「학병 수첩」과 「김덕수」에 나타난 청년 세대는 총동원체제기 일제의 논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제되고 포함된다. 해방기 사회의 기성세대에게 학병은 민족의 오욕을 상징하는 살아돌아온 희생양[29]이었다. 「학병 수첩」은 전쟁에서 돌아온 학병을 민족 내부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만 「학병 수첩」에서 '나면서부터 일본인'으로 규정되는 학병 세대는 결코 기성 세대와 같은 '순수한' 조선인이 될 수 없다. 「김덕수」의 김덕수 또한 기성세대 '나'의 계몽으로 민족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신을 조선인으로 정체화하지만 청년 김덕수가 끝내 감옥에 수감되는 서사적 종결은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가 조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나 이들이 결코 같아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서사적 전략은 피식민자를 동원하는 제국의 논리와 일치한다.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이상적 청년상 역시 일제가 주조한 이상적 청년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학병 수첩」은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나'가 "일본을 위하여 총을 잡고 싸우던 우리 학병들…이제부터는 마음 다시 먹어 내 나라 내 강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젊은 심신을 바칠 날이 왔다."라는 결의를 다지는 대목으로 종결된다. 이는 총동원체제기 일제가 이상화한 청년상과 닮아있는데, 당시 일제는 "國民各人의 身體는 天皇과 國家에 屬하는 것으로 決코 自己一個人의 身體가 아니다"[30]라고 역설하며 당대 청년을 국가에 귀속된 존재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학병 수첩」의 청년은 총동원체제기 일제의 강요한 이상적인 청년상과 상당 부분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해방 후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은 식민 체제의 연장선에 있

27) David Huddart, *Homi K. Bhabha*, 조만성 옮김,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011, 111쪽.
28) 박수빈, 앞의 글, 3쪽.
29) 이혜령, 앞의 글, 13쪽.
30) 「대동아 건설과 청년의 체력」, 『매일신보』, 1941.2.21.

다. 세대 구분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 연호, 배제와 포함의 논리, 헌신하는 이상적인 청년상까지 김동인의 세대론은 조선을 억압한 일제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방 정국에서 김동인이 이와 같은 세대론을 구성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식민 체제가 와해된 해방 정국에서 부상한 민주주의 담론과 결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방기 조선 사회는 민주주의 담론에 의거하여 민족/국민 국가 건설하고 국가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했다.

주지하듯 제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었으며 연합국의 승리는 전후 세계를 민주주의의 세계로 재편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했던 조선 사회 또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31] 민주주의가 주요 담론으로 떠오른 해방 후 조선 사회는 국가 내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예속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개인의 관계로 전환해야 했다.[32] 식민지 시기 계몽의 주체로 군림했던 지식인과 문학자들은 자신도 인민의 한 사람임을 직시해야 했고[33], 국가 구성원의 수평적 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문학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했다. 자기비판 담론이 해방기 문단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와 관계있다.

해방기 사회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시기라는 점은 해방 직후 김동인이 세대론에 천착했던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여기서 세대 문제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세대는 세대와 관련 없는 사안을 세대의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용한 도구다.[34] 근대는 개인을 공동체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이는 역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져왔다. 직업과 국적이 개인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세대'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 고안된 닻으로, 세대는 기원, 현재의 위치, 미래 전망을 질문하

31) 김봉국, 「해방 직후 민주주의 공론장의 안과 밖」, 『감성연구』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137쪽.
32) 고병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1, 65쪽.
33) 이행선, 앞의 책, 69-70쪽.
34) 전상진, 『세대 게임』, 문학과 지성사, 2018, 9-22쪽.

는 정체성의 세 질문에 시간과 관련한 대답을 내놓는다.[35]

'세대'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도구라는 점은 해방 직후 김동인 소설에서 반복되는 세대 구분과 세대론의 문제를 그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게 한다. 반공 체제가 강화되는 시기 김동인은 우익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민족 기표 만들기를 수행했지만[36] 반공 체제가 심화되기 이전인 해방 직후, 대일 협력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가 의탁할 수 있는 정체성은 세대 정체성이었다. 실제로 김동인은 총동원체제기 학병 입영이 "조선인의 지위를 내지인과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고마우신 분부"라고 진술하며 학생들이 일제의 "전폭적인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신할 것을 강권했다.[37] 학병 지원 독려는 김동인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았으며 최남선, 이광수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배'들은 학병 격려[38]라는 사건을 공유했다.

총동원체제기 학병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김동인은 청년 세대의 대일협력 혐의와 기성세대의 식민 경험을 대조적으로 부각할 뿐 자기를 비판하거나 기성 세대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동인은 이광수를 옹호하는 논조의 글을 발표하여 기성 세대의 식민 경험을 특권화하는 데 주력했다.

> 지금껏 靑年界의 師表로 추앙받던 春園이 홱 돌아서서 청년사상 악지도자로 표변하였다.
>
> 學兵, 徵兵 등을 위하여 강연을 다니며 천황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말라고 부르짖던 春園- 그가 과연 예전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외치던 춘원의 후신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중략)
>
> 돌이켜 생각하건대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가 일본 제국주의의 철봉 아래서 春園의 덕으로 피하게되었는가? 춘원이 서둘러서 막지 않았더면 일본의 성난 제국주의는 얼마나 많은 피를 이 민족에게 요구하였던가?[39]

35) 위의 책, 150-153쪽.
36) 강정구, 앞의 글, 373쪽.
37) 김동인, 「반도민중의 황민화」, 『매일신보』, 1944.1.18.~28.
38) 류시현,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 - 학병수기집 『청춘만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52권, 호남학연구원, 2012, 100쪽.

김동인은 자신이 문단 박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황군위문에 나섰던 것처럼 이광수가 동우회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향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광수의 희생 아래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제의 폭압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기성세대의 대일 협력이란 청년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이자 헌신이었다는 것이 김동인의 주장이다.

김동인의 세대론에는 대일 협력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전환하여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송 첨지」, 「학병 수첩」, 「김덕수」를 연속하여 살폈을 때, 김동인의 세대론은 친일 청산 문제를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는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성 세대의 식민 경험 특권화, 민족의 오욕으로서의 청년 표상, 계몽 주체로서의 기성 세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기성 세대라는 정체성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양상을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요구되었던 해방기 사회와 연결하여 검토했을 때, 민족 정체성에 귀의할 수 없었던 김동인이 닻을 내린 곳은 세대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 직후 김동인의 작품에서 집요하게 나타나는 세대론은 반공 체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김동인이 역사 속에 닻을 내리기 위해 고안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라 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1920~30년대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김동인의 해방기 소설에 주목하여 해방 후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청년상은 당대 주요 소설들이 표상한 청년상과 다소 상이하다. 해방기 사회는 청년을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호명했으며 다수의 해방기 소설은 이에 부합하는 이상적 청년을 형상화했다. 그러나 당대 사회의 청년 담론과 달리 실제 거리의 청년들은 정치적 목적 아래 기성세대로부터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방기 사회는 청년을 '순수한' 국

39) 김동인, 「文壇三十年史」,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976, 73쪽.

가 건설의 주역이라 명명했으나 실제 청년들은 기성 세대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더러운 일'을 수행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해방기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세대론이 당대 주류 담론에 기반한 이상적 청년상이 아니라 기성 세대에 의해 동원되는 실제 청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김동인은 「송 첨지」, 「학병 수첩」, 「김덕수」에 걸쳐 기성 세대의 식민 경험을 민족을 위해 헌신한 경험으로 특권화하는 한편 청년 세대를 민족의 오욕으로 표상하여 기성 세대를 청년의 계몽자로 위치시킨다. 김동인의 세대론은 일본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청년 세대를 민족 내부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배제한다는 점, 총동원체제기 일제가 조선 청년에게 부여한 청년상을 해방 후 청년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동인이 이와 같은 세대론을 구성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김동인의 세대론에는 대일 협력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전환하여 대일 협력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 첨지」, 「학병 수첩」, 「김덕수」를 연속하여 살폈을 때, 김동인의 세대론은 친일 청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청년 세대에게 전가하는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성 세대의 식민 경험 특권화, 민족의 오욕으로서의 청년 표상, 계몽 주체로서의 기성 세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기성 세대라는 정체성으로 수렴된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요구되었던 해방기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된 것으로 반공 체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대일 협력의 문제로 민족 정체성에 귀의할 수 없었던 김동인이 역사 속에 닻을 내리기 위해 '세대'라는 도구를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김동인, 「지난 時節의 出版物 檢閱」, 『해동공론』, 1946.12.
_____,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976.
_____, 『김동인 단편 전집2』, 가람기획, 2006.
정용욱 편, 『해방 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 10, 다락방, 1994.
채만식, 「民族의 罪人(下)」, 『백민』 제16호, 1949.1.

2. 논저

강정구, 「해방기의 김동인 문학에 나타난 민족 표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김영삼, 「제국과 친일문학의 생명정치 논리 - 김동인의 《매일신보》에 실린 논설과 해방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9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1.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김준현, 「단정 수립 후 문학 장의 변화와 이헌구의 문단회고 - 자기서사의 재구성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83권, 민족어문학회, 2018.
김행선,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선인, 2004.
박수빈, 「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박용재, 「해방기 세대론의 양의성과 청년상 함의 - 『1945년 8·15』, 『효풍』, 『해방』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53권, 한국비교문학회, 2011.
소영현, 「청년과 근대 - 『少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5.
오태영, 「전시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문학의 공백과 균열 - 김사량의 『바다의 노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2집, 상허학회, 2014.
_____, 「해방과 청년 이동의 (비)가시화」, 『동악어문학』 제75집, 동악어문학회, 2018.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이행선, 『해방기 문학과 주권인민의 정치성』, 소명출판, 2018.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제27집, 상허학회, 2009.
전상진, 『세대 게임』, 문학과지성사, 2018.
전지니, 「해방기 희곡의 청년 담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정길화, 「친일파, 그들만의 면죄부」,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해냄출판사, 2006.
하상일, 「해방 이후 김동인의 소설과 친일 청산을 위한 자기합리화」, 『철학사상문화』 제30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David Huddart, *Homi K. Bhabha*, 조만성 옮김,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011.

〈Abstract〉

The Logic of the Older Generation and Mobilized Youth
- Focusing on the Generation Theory of Kim Dong-in's Novel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

Park, Su-Jung

This thesis tried to discuss the generation theory that appeared in Kim Dong-in's novels after liberation by paying attention to Kim Dong-in's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the 1920-30s. The image of youth in Kim Dong-in's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major discourses on youth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e liberation period, the society called the youth of the time a "pure" nation-building leader, but in reality, the young obeyed the older generation and performed the dirty work on their behalf.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generation theory in Kim Dong-in's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s not the ideal youth image based on the mainstream discourse of the time, but is similar to the real youth mobilized by the older generation.

Kim Dong-in privileged the colonial experience of the older generation through 'Song Cheomji.', 'Student Soldier's Record', and 'Kim Deok-soo' while representing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 national disgrace, positioning the older generation as the enlightener of the young. Kim Dong-in's generation theory can be said to have an inherent intention to move away from the core of the problem of cooperation with Japan by turning the problem of cooperation with Japan into a problem of generations. Furthermore, Kim Dong-in's generation theor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s also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he liberation period, which required the formation of a new identity. Kim Dong-in, who could not return to national identity due to the cooperation problem with Japan before the anti-communist system becomes serious, actively used generation identity

to anchor in history.

* Key Words: Kim Dong-in, Generation Theory, Liberation Period, 「Song Cheomji」, 「Scholarship Handbook」, 「Kim Deok-Soo」

· **논문투고일**: 2022년 9월 26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14일 · **게재결정일**: 2022년 11월 23일